

로마서 묵상 16  
(12/18/2020, 금)

찬양: 261(195)(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3:1-8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논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1): 유대인됨, 그리고 할례받음의 유익이 무엇인가? 1 절 -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선민이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며, 아울러 그들이 자신들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비판을 듣는 유대인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만약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선민이며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것이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유대인됨과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유대인됨과 할례받음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절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나. 바울은 유대인됨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 “맡았음”의 의미는, 말씀을 위임받고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며 이루어드려야 하는 책임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것을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2):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전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실 수 있는가? 3 절 -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미쁘심”은 ‘신실함’, ‘엄숙한 약속’, ‘증거’, 혹은 ‘보증’ 등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부의 유대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4 절 -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인간은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신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시 51:4 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 중의 일부입니다. 시 51:4 -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 자신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때임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부 유대인의 문제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파기 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높이고, 말씀을 함부로 거역하며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죄악된 유대인의 문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3): 만약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다른 말로, 의로움을 드러내게 한 불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심판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것). 5-6 절 -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6.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지금 언급한 유대인들의 질문은 일종의 궤변이며, 논쟁을 위한 논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가 의를 드러내었으니, 그 불의를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대답합니다. 불의는 명백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지 못하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불의는 심판 받아 마땅함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고 불의를 일삼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있지 않겠느냐며 궤변으로 교묘하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강조함으로 엄격한 대답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4): 만약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7-8 절 -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유사합니다. 이것 역시 어떤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드러낸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궤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심판이 불가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8 절 - ...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악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심지어 남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어떤 이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의 일행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말을 퍼뜨렸음도 드러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속성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헛된 궤변을 통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논쟁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한번 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8 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특권임과 함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말씀을 받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깨달은 바를 행하고 실천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불신실함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불의의 결과는 심판이며, 심판으로 인한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됨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며, 그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논증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성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참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혼돈 속의 미국과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시 19:14).